여수 사도·낭도·백야도 일대 98만3000㎡

테마·가족 휴양시설 본격 개발

내달 투자설명회…민자 1,700억 유치키로

공룡화석지로 유명한 여수 사도와 낭도, 백야도 일대 98만3천㎡가 본격 개발된다.

여수시는 사도와 낭도 일대에 대한 해외자본 유치에 착수했다.

여수시가 화정면 사도와 낭도, 인근 백야도 지구를 대상으로 해외자본 투자유치 타당성 분석 용역을 실시한 결과, 해외자본 투자를 위한 사업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여수시는 용역결과에 따라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를 추진중인 사도는 보존을 하고, 낭도는 이국적 분위기와 이색체험이 가능한 '테마형 휴양리조트'로 개발할 방침이다.

또 백야도는 인근 화양관광단지와 차별화된 '가족형 휴양시설'로 조성된다.

여수시는 국내외 투자가를 대상으로 다음 달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을 위해 국내외 민간자본 1천700억원을 유치할 계획이다.

시는 또 민간자본 유치에 앞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사도와 낭도, 백야도를 잇는 교량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사도와 낭도, 백야도는 자연환경이 비교적 잘 보존돼 국내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며 특히 바다 한 가운데 모래로 쌓은 섬 같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사도는 음력 3월 29일 바다가 갈라지는 '모세의 기적'이 연출되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한편 이들 지역에 대한 용역은 국비 1억원을 포함해 2억원을 들여 지난 2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실시됐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여수 사도와 낭도, 백야도 일대가 민간 자본으로 개발된다. 이들 지역은 공룡 화석지로 유명한데다 자연환경이 잘 보존돼 있어 가족형 휴양시설의 적지로 꼽히고 있다.

"가을이 왔어요 전어 드세요"

'9월 수산물' 선정

"가을에는 전어가 제맛 입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전어를 '9월의 수산물'로 선정했다.

전어는 7월부터 속살에 기름기가 오르기 시작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늦가을 까지 그 맛이 절정에 달한다.

옛말에 '가을 전어 머리엔 깨가 서말' '가을 전어 냄새에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 라고 할 정도로 가을 전어는 봄이나 겨울 보다 지방성분이 3배 가량 많아 고소한 맛을 더해 준다.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고 고소한 감칠 맛이 일품인 가을 전어는 다이어트 음식으로 그만이며 한방에서도 이뇨, 정장 효과가 있어 장년층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등 푸른 생선의 대표격인 전어는 여수 가막만과 여자만, 득량만에서 연 340t 가량이 잡히고 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순천만 개발 최소화

市, 대형주차장·교통공원 백지화…편익시설만 설치

순천만 개발 방향이 최소한의 편익시설 설치로 가닥이 잡혔다.

순천시가 최근 잠정 확정한 순천만 생태공원 조성 계획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대형 주차장과 교통공원 조성 사업은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곳에 소규모 주차장과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생태 습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철새와 별을 함께 조망할 수 있는 천문관을 세우고 순천만 입구에 있는 식당들도 이전이 추진된다.

순천시는 이같은 내용으로 오는 2009년까지 7만여 ㎡의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국비와 도비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따라서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지난해 70만명이 찾았던 순천만은 올해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순천 우수 농·특산품 한가위 특별판매

순천시가 추석과 10월에 열리는 각종 축제를 앞두고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는 등 우수 농·특산품 특별판매에 앞장서고 있다.

순천시는 추석절을 맞아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서울시 양천공원과 농협 순천시지부에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순천농협 농·축산물과 명설차 등 특산품 6종을 판매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농·특산품 전단을 제작해 4일부터 양천구와 아파트 자치회 및 기관단체를 방문, 배포하고 인터넷 등을 대상으로 사전주문 판촉 홍보활동도 벌이게 된다.

또 순천만 갈대축제와 남도음식문화 큰잔치가 벌어지는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순천만, 낙안읍성, 농업기술원 등에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는 한편 11월에는 수도권 소재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순천미인 농특산품 특판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 새얼굴

"지역특성 맞게 새 교육행정 펼터"

신 태 학 순천시 교육장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교육행정 패턴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신임 신태학(61) 순천시 교육장은 "외국어 교육과 세계 시민교육을 전개하는 등 순천교육이 교육공동체 최우수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 출신인 신 교육장은 광주교육대와 조선대 법정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 했으며, 지난 67년 나주 봉황초등학교에서 교직에 첫 발을 내디딘 후 전남도교육청 중등장학사, 여수교육장 등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김경임씨와 4녀가 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MOU업체 75% 실제 투자

여수시 6곳 2430억…순천시도 50%인 4곳 성사

순천시와 여수시가 민선 4기 들어 국내외 업체와 MOU(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실제 투자로 연결된 비율이 50~7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시는 지난 7월 민선 4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국내 8개 업체와 MOU를 체결했으며 이 중 50%인 4개 업체가 순천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순천 업체에 자본을 투자했다.

4개 업체가 투자한 액수는 전체 8개 업체가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액수(1천113억 원)의 41.1%인 457억 원이다.

여수시도 민선 4기가 들어선 이후 현재까지 국내 8개 업체와 MOU를 체결했고 이 중 75%인 6개 업체가 여수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여수 업체에 자본을 투자했다.

이들 6개 업체가 투자한 금액은 전체 8개 업체가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금액(3천830억 원)의 63.4%인 2천430억 원에 달했다.

국내외 업체와 MOU를 체결한 후 1년 내에 투자로 이어진 업체 비율이 50~75%에 달한 것은 전남도 내 다른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해 좋은 실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광양시도 올해 중국 1개 석재업체와 국내 2개 조선업체 등 총 3개 업체와 3천억 원에 달하는 MOU를 체결했으며 이들 업체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투자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아프리카 돕고 여수엑스포도 알리고"

'BIE회원국 돕기' 줄이어

여수 지구촌사랑나눔회가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프리카 BIE(세계박람회기구) 회원국 돕기 성금 모금액이 7천만 원을 돌파했다.

광주은행 노관숙 부행장은 3일 오현섭 여수시장〈사진 왼쪽〉에게 '아프리카 사랑나눔'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여수 지구촌사랑나눔회 강병석 회장은 최근 아프리카 현지 활동비용 목적 지정기탁비로 1천만원을, 제일병원 명의로 500만원 등 모두 1천500만원을 여수지구촌사랑나눔회에 기탁했다.

한편 여수 지구촌사랑나눔회는 최근 실무추진위원회를 열고 아프리카 방문단 구성 및 활동계획을 확정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光州日報 지사안내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여 수	653-8444 (686-8584)	목 포	276-9200	나주시	332-5544
광 양	792-8111	무 안	452-8535	나주군	332-7764
보 성	853-9700	해 남	534-5151	화 순	374-4423
순 천	746-8111	완 도	554-6677	장 성	392-7000
고 흥	833-9900	영 광	351-0055	담 양	383-8111
녹 동	842-2121	신 안	243-3758	영 암	473-2340
구 례	783-8111	진 도	543-0100	장 흥	863-8822
곡 성	362-8111	강 진	433-8355	광 산	944-0444
		함 평	324-8111		